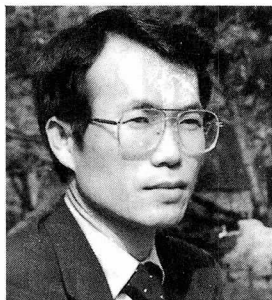


있게 될 것이고 사회 곳곳에서는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각 가정에서는 상품구매나 은행업무 등을 가정용 단말기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외출을 줄일 수 있다. 사무직 사원들 역시 거의 대부분이 집에서 일을 처리함으로써 매일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고 자녀들 교육도 편리한 시간에 학습용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병원에 직접 찾아가는 일도 드물어진다.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면 각종 원격진단장치를 통해 의사의 진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회사의 출장도 줄어든다. 웬만한 회의나 정보교환은 정보통신기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오락도 CATV 등을 통해 즐길 수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기 위해 그렇게 뛰어다닐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 대신 남는 시간들이 많아지므로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시간을 보낼지도 모르고 혹자는 레저에 관심을 기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렇듯 인간의 다양한 욕구와 보다 편리한 삶을 제공하며 여러 분야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고도정보화 사회는 부산물로 우리가 예측한 또는 예측못한 새로운 부작용도 파생되리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와 연구를 꾸준히 지속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풍요로운 고도정보화사회의 도래와 이의 향유를 낙관해도 좋으리라.



趙 星 基

〈소설가〉

## 컴퓨터를 모르면 21세기엔 문맹자

나는 아직 컴퓨터를 다룰 줄 모른다. 그래서 컴퓨터와 관련된 정보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그러나 앞으로 컴퓨터를 모르고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활용할 줄 모르면 그야말로 21세기의 문맹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제법 많은 프로그램이 입력되어 있는 워드프로세스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있다. 이 기계를 사서 익숙하게 사용하기까지 꽤 고생을 하였다. 여러가지 조작 기술을 익히고 브라운관의 화면에 익숙해지기까지 멀미가 날 정도로 골머리가 아팠다. 그러나 이제 이 기계가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써나갈까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

있을까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기도 한다. 그렇다.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들도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자신들의 집필방법을 개선해나가지 않으면 낙기계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기가 나가지 않아야 하는데 그래서 아침 신문을 펼칠 때마다 휴전안내를 유심히 들여다보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워드프로세스에 익숙해지면서 컴퓨터도 배우고 싶은 충동을 느끼곤 한다. 그리고 컴퓨터가 제공해주는 정보를 활용한다면 얼마나 충실한 자료에 근거하여 소설을 쓸 수 후될 수 밖에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을 미리 깨닫고 오래전부터 컴퓨터를 활용하고 있는 문인들도 제법 있는 줄 안다. 국민학교 딸 아이가 3학

# 특집 I

## 정보화사회의 비전

년인데 이번 여름에 컴퓨터를 사달라고 떼를 쓰고 있다. 우선 조그만 것이라도 사주고 나도 딸아 이와 함께 컴퓨터를 배워볼 작정이다. 그리하여 거대한 정보화의 사회로 한발작 들어서고자 한다.

국회의원 중에 이철이라는 무소속 의원이 있다. 그는 학생운동을 주도하다가 사형언도까지 받았던 사람으로 여기저기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다. 그도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상인이었으므로 직업을 얻고자 하나 그의 화려한(?) 전과때문에 직장도 쉽게 얻을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장사를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었다. 이불 장사도 하고 오만가지 장사를 다해보았다. 그러다가 자금이 좀 모아졌을 때는 컴퓨터와 관련된 잡지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 사회학과를 나온 그였지만 먹고 살 길을 더듬어 찾다가 컴퓨터 잡지까지 손을 대게 되고 그 결과 컴퓨터에 관하여 전문가적인 지식을 습득하게 되었다.

국회의원이 된 지금 그는 누구보다도 정확한 정보에 의거하여 국회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획득하고 있다. 이것은 순전히 컴퓨터를 활용하여 얻게 되는 정보에 힘입은 바 크기 때문이다. 그는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국회의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는 컴퓨터 잡지를 만들며 고생하고 있을 때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지 모른다. 그 무렵 그는 복권도 되지

못한 채 정치권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었으니까 말이다. 그런데 그는 이제 컴퓨터로 인하여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소신껏 정치를 해나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나는 다른 국회의원들도 이철의원과 같은 사람들처럼 컴퓨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방대한 정보량을 소화하면서 의정활동을 펼쳐나간다면 우리나라 정치수준도 높아질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본다.

이와같이 각 분야마다 정보화 추세를 외면할 길이 없다. 이 정보화의 추세를 외면하고 구태의연하게 품만 잡고 있다가는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시대의 낙후자가 되기 십상이다.

나는 요즘 대하소설을 구상하고 있는데 자료정리가 큰 골치거리이다. 책들을 모으고 신문 스크랩들을 모으고 하지만 공간만 많이 차지할 뿐 별로 효과적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좀더 일찍 컴퓨터를 배울걸 하는 후회를 가지게 된다. 고등학교 1년 선배인 이철의원이 컴퓨터 잡지 사업을 한다고 왔다갔다 할 때 옆에서 좀 배워들 걸 하는 아쉬움을 가졌지만 이제부터도 때가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 원고를 쓰으로써 나의 이러한 결심을 더욱 굳히고자 하는 바이다. 정보화사회로 인한 여러가지 부작용들은 차후에 생각할 문제일 것이다.

